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학석사 학위논문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배 제 현

Collection @ pknu

공학석사 학위논문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지도교수 홍 재 범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배 제 현

dCollection @ pknu

배제현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27일

위 원 장 공 학 박 사 김 영 진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김 성 태 (인)

위 원 경영학박사 홍 재 범 (인)

dCollection @ pknu

목 차

제 1장 서 론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제 2장 고성장기업에 대한 문헌 고찰 ····· 5

제 1절 국외 주요 선행연구 ····· 5

1. Birch (1981) ····· 5
2. Birch and Medoff (1994) ····· 6
3. OECD (2000, 2002) ····· 6
4. Acs and Muller (2008) ····· 8
5. NESTA(2009) ····· 9

제 2절 국내 주요 선행연구 ····· 11

1. 임채윤 (2009) ····· 11
2. 김석현 (2009) ····· 14
3. 서정대 · 김선화 (2009) ····· 15
4. 조덕희 (2011) ····· 18
5. 박순홍 · 신현한(2013) ····· 22
6. 김석현 · 김선우 · 정현주(2013) ····· 23

제 3장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 ····· 25

제1절 고성장기업의 분포 ····· 25

1.표본의 선정 ····· 25

dCollection @ pknu

2. 연도별 고성장기업의 분포 ····· 27
3. 지역별 고성장기업의 분포 ····· 28
4. 업종별 고성장기업의 분포 ····· 30
5. 규모별 고성장기업의 분포 ····· 32
제2절 고성장기업의 고용효과 ····· 35

제 4장 결론 ····· 39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의 ····· 39
제 2절 연구의 한계 ····· 40

참 고 문 헌 ····· 42
국내문헌 ····· 42
국외문헌 ····· 44

dCollection @ pknu

표 목 차

<표 2-1> 고성장기업 분석의 주안점 ····· 15
<표 2-2> 고성장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 ····· 17
<표 2-3> 고성장기업의 업력별 분포 ····· 17
<표 2-4> 고성장기업의 기업체 수 및 고용 변화(2005~2008) ····· 19
<표 2-5> 고성장기업과 일반 기업의 고용 추이 비교 ····· 19
<표 3-1> 표본 선정 ····· 26
<표 3-2> 연도별 표본 분포 및 비중 ····· 27
<표 3-3> 지역별 기업 분포 ····· 29
<표 3-4> 업종별 기업 분포 ····· 31
<표 3-5> 규모별 기업 분포 ····· 33
<표 3-6> 4개년 고용성장률 기준 고성장기업의 기업체 수 및 고용 변화 (2003~2013) ····· 35
<표 3-7> 고용증가율 10분위 기업별 고용창출 비중(4개년 평균 증가율 기준) ····· 37

dCollection @ pknu

그 림 목 차

<그림 2-1> 직원수 10인 이상인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 10
<그림 2-2> 평균 종업원수 추이 및 매출액 추이 ····· 12
<그림 2-3> 평균 수출액 추이 ····· 13
<그림 2-4> 평균 개발비 및 R&D집약도 추이 ····· 13
<그림 2-5> 고성장기업 특성 분석의 방법론 프레임 ····· 15
<그림 2-6> 고용증가율 10분위 기업별 고용창출 비중 : 증가율기준 ····· 20
<그림 2-7> 고성장 중소기업의 수 및 비중 변화 추이 ····· 21
<그림 2-8> 성장 정체 중소기업의 수 및 비중 변화 추이 ····· 22
<그림 3-1> 고성장기업의 수 및 비중 변화 추이 ····· 28
<그림 3-2> 지역별 고성장기업의 비중 ····· 30
<그림 3-3> 업종별 고성장기업의 비중 ····· 32
<그림 3-4> 규모별 고성장기업의 비중 ····· 34
<그림 3-5> 4개년 고용성장률 기준 고성장기업의 기업체 비중 및 고용 변화 (2003~2013) ····· 36
<그림 3-6> 고용증가율 10분위 기업별 고용창출 비중(4개년 평균 증가율 기준) ····· 38

dCollection @ pknu

Employment effects of High-Growth Firms

Je Hyun Beh

i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Management of Technolog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stribution and trends of High-Growth Firm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and Confirmed High-Growth Firms' level of contribution to creating of employment.

We analyzed a set of 11 years from 2003 to 2013. In order to determine the employment data in the High-Growth Firms, We made use of the data(KISVALUE) provided by NICEINFO, in particular the external audit incorporations. We defined the High-Growth Firms as companies that grow more than 20% of employment during more than 3 years and this is similar to OECD's definition.

Companies with employment growth rates that have decreased in four years between 2003 and 2013 are 19,245 businesses and accounted for 36.5% of the total manufacturing sector companies. The number of decreased employment is 857,909.

Whereas, Companies with employment growth rates that have increased in four years, are 33,487 businesses and accounted for 63.5% of the whole of manufacturing sector companies.

Companies which showed more than 20% of employment growth among companies with employment rates that have increased in four years by 5,930 and accounted for 11.2% of the whole, can be defined as High-Growth Firms. The 64.2% of the new employment was generated by such companies.

Therefor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job creation rely on High-Growth Firms.

dCollection @ pknu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일자리가 있어야만 국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다. 즉,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성장기업(High-Growth Firms)은 일정기간 동안에 고용 또는 매출액, 수익 등에서의 성장률이 여타 기업들 보다 현저히 높은 기업을 뜻한다. 여기서 현저히 높은 정도는 나라별로 학자별로 다양하며 가장 많이 준용되는 것은 OECD의 정의이다. OECD는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용 또는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3개년 간 20%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정의하였다. 가젤(Gazelles)기업은 작지만 빠른 성장을 보이는 기업의 미국식 표현이며, 보통 고성장기업 중에서 창업된 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을 말한다.

고성장기업을 주목하는 주된 이유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나라별, 산업별 전체 기업 중에서 고성장기업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수의 고성장기업이 전체 신규 일자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rch(1981)는 고성장하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함을 제시하면서 고성장기업의 중요성을 처음 제시하였으며 Birch and Medoff(1994)는 연평균 20%의 매출 성장과 10만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을 가젤로 정의하고, 1988년에서 1992년 사이에 미국 내 4%의 가젤기업이 70%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Collection @ pknu

충격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OECD(2007)도 고성장기업을 매출액 또는 고용자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몇몇 선진국을 대상으로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10% 미만의 고성장기업이 전체 고용창출에서 평균적으로 50~60% 정도를 창출한다고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고성장기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임채윤(2009)은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2007년)에 응답하고 연속적인 고용통계가 입수 가능한 2,393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성장기업을 2004~2007년 기간 동안 매출증가율을 100% 이상, 고용증가율을 평균의 2배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에서 16.1%에 해당하는 386개 기업이 고성장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의 고용창출 성과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서정대 · 김선화(2009)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4,68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고성장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16,000여 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상시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4,683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성장기업을 2005~2008년의 기간 동안 고용 증가율 100% 이상을 달성한 사업체로 정의하고, 이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업체 중에서 약 10.0%의 업체가 고성장기업에 해당되고 이들이 전체 신규 일자리의 46.3%를 창출했다고 제시하였다.

박순홍 · 신현한(2013)은 2000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1회 이상 벤처확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가젤기업과 비가젤기업을 분류한 후 가젤기업의 수익성 및 고용창출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젤기업의 수익성과 고용창출력이 비가젤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연구개발 투자비중도 가젤기업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

조덕희(2011)는 국내 제조업 부문 상장 · 등록 · 외감법인 중에서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개년 간 종업원 수가 입수 가능한

Collection @ pknu

5,915개사를 대상으로 2008년 1개년을 분석하였다. OECD 기준에 따라서 분석기간 3년 동안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이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정의한 후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업 부문의 고성장기업은 조사대상 5,915개 기업 중에서 9.8%로 나타났으며, 총 고용창출 기여도가 31.0%에 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고성장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조덕희(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기간을 확장한 지난 13년간 일자리를 창출해 온 고용 측면에서의 고성장기업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연도별로 고용 고성장기업의 분포를 조사하고, 이들이 창출한 일자리 수, 그리고 성장률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성장기업이 많은 지역과 업종이 어디인지도 분석하였다.

Collection @ pknu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제조업에 해당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업종에 따라 고용의 구조가 달라 이를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기업 재무제표 자료(KISVALUE)를 사용하였다. 결측치 또는 전후년도의 값과 매우 상이한 값이 있는 기업의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업의 종사자 수는 매출액을 종업원 1인당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고성장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년의 자료가 한 세트로 구성된다. 조덕희(2011)는 고용을 기준으로 2005~2008년의 4개년 1세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덕희(2011)의 연구와 동일하게 고용을 기준으로 2000년 2013년을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여 2000~2003년을 한 세트, 2001~2004년을 한 세트, 2002~2005년을 한 세트로 구성하는 식으로 총 11세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고성장기업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제 3장에서 고성장기업의 연도별 분포와 고용창출 효과에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제 4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Collection @ pknu

제 2장 고성장기업에 대한 문헌 고찰

제 1절 국외 주요 선행연구

고성장기업에 대한 정의는 나라별로 학자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과 매출액 등의 특정한 변수의 성장률이 다른 여타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기업을 뜻한다. 고성장기업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Birch (1981)[1)]

고성장기업은 Birch(1981)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Birch(1981)는 미국에서 대기업이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1969년에서 1976년 사이에 56백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중 2/3가 직원 수 20명 미만인 기업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82%가 100명 미만인 기업체서 만들어졌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자들의 주요 특징은 기업연령이 적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설립 4년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많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irch(1981)는 더 이상 대기업은 주된 일자리 제공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대기업에서 고용창출이 정체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를 실시한 데 기인한다고 제시하였다.

---

1) Birch, D. L. (1981), "Who creates jobs," Public Interest, No. 65.

dCollection @ pknu

2. Birch and Medoff (1994)[2)]

Birch & Medoff(1994)는 가젤기업(gazelle)을 4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증가에 기준연도의 수입(收入)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용창출에 가장 중요한 기업은 중규모의 가젤기업이라고 제시하였다. 1988년에서 1992년 사이에 미국 내 약 4%의 가젤기업이 기업 전체 신규고용의 70%, 경제 전체 신규고용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3년 미국 가젤기업의 평균규모는 직원 수 61명이라고 주장면서 이러한 가젤기업은 모든 산업에서 고루 발견된다고 제시하였다.

3. OECD (2000[3)], 2002[4)])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2)에서는 고성장기업의 정의로 '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으로 정의하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퀘벡)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10% 미만인 고성장기업이 전체 고용창출의 평균 50~60%를 차지한다고 제시하였다.

OECD(2002)는 프랑스, 캐나다의 퀘백 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고성장기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전체 사업체에서 10% 미만에 불과한 고성장기업이 전체 고용창출에서 평균적으로 50~60% 정도를 창출한다고 하였다.

OECD(2002)는 고성장기업의 특성을 혁신과 시장 및 기술 연관성(linkage), 조직과 경영, 팀워크, 네트워킹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2) Birch, D. L. and J. Medoff (1994), "Gazelles", in Lewis C. S. and A. R. Levenson, eds. Labor Markets, Employment Policy and Job Creation, Boulder: Westview Press.
3) OECD (2000), "High-Growth Firms and Employment"
4) OECD (2002), "High-Growth SMEs and Employment"

Collection @ pknu

같다.

고성장기업의 첫 번째 특성은 혁신이다. 제품혁신은 고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증연구들은 새로운 제품개발과 기업 경쟁력 간의 관계를 강조해왔으며 또한 혁신이 새로운 제품을 통해 발현됨과 혁신이 고성장기업의 원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저성장을 보이는 기업과 비교 시 고성장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더 자주 선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기업의 두 번째 특성은 시장 및 기술 관련성(linkages)이다. 고성장기업은 매우 시장 지향적이다. 고성장기업은 다른 기업과 가까운 고객을 포함하여 어떤 관계냐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고성장기업의 시장이 반드시 고성장 시장일 필요는 없지만, 제품에 관한 한 시장을 앞서서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성장기업의 세 번째 특성은 조직과 경영이다. 기업 조직 및 경영 그리고 혁신 프로세스는 이용 가능한 인적 · 재원적 자원으로써 중요하다. 만약 적절한 조직과 경영기법을 사용한다면 R&D와 혁신을 위해서 약간의 자원을 한쪽에 떼어두는 기업이 보다 많은 R&D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다. 고성장기업은 일반적으로 분권화와 참여방식의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고성장기업의 대다수는 성장과정 동안 몇 번의 조직변화를 겪는다. 대부분의 고성장기업은 기능 및 제품 관리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갖는다. 중요한 의사 결정과 전략의 선택은 구성원 간에 토론 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고성장기업의 네 번째 특성은 팀워크이다. 고성장기업은 의사결정 공유하기, 내부 커뮤니케이션, 지속적인 교육, 이익 분배와 스톡옵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고양시킨다. 고성장기업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보통의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 고성장기업의 조직은 “참여 및 학습"으로 설명된다. 적극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팀원의 능력향상과 동기부여에 집중한다. 고성장기업은 정기적으로 생산부서 조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Collection @ pknu

한다.

고성장기업의 다섯 번째 특성은 네트워킹이다. 고성장기업에 있어 제휴 및 협력과 같은 네트워킹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휴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일 수 있으며 다양한 상대와 형성되며 저성장기업 보다 고성장기업이 더욱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성장기업의 대다수 임원들은 기업이 고성장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객은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고성장기업은 자신들의 시장에 있는 고객에게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한다. 이들 기업의 시장지향성과 차별화 전략은 가까운 고객관계 및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4. Acs and Muller (2008)[5]

Acs and Muller(2008)는 최근 4년간 매출 성장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동일한 규모의 기업에 2배 이상인 기업을 고성장기업(High Impact Firm)으로 정의하였다. 고성장기업들 중에서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기업을 쥐(mice), 종업원 수 20~499명 사이에 기업들을 가젤(Gazelles), 500명 이상인 기업을 코끼리(Elephants)라고 명명하면서 가젤형 기업들이 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고용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창업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서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는 고용성장에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고 향후 연구과제로 창업기업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간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5) Acs, Z. J., Mueller, P. (2008), "Employment Effects Of Business Dynamics: Mice, Gazelles and Elephant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30, No. 1.

Collection @ pknu

5. NESTA(2009)[6]

NESTA(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2009)는 영국 통계청의 기업 구조 데이터베이스에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의 모든 기업에 대한 상세한 사업 등록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산업, 소재지, 업력을 분석하여 2002-2005년 및 2005-2008년에 걸친 두 기간에 걸쳐 매출 및 고용 성장률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NESTA(2009)는 1998년에 설립 된 모든 신생 기업에 대해 10년에 걸친 흥망성쇠를 조사하였으며 방법론은 OECD의 것을 따랐다. 즉, 고성장기업을 초기 3년 기간에 종업원의 수가 최소 10명으로 시작하여 3년에 걸쳐 연평균 고용성장률이 20%이상을 달성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고성장기업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영국 기업에서 6%에 상당하지만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54%)을 창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1,530개의 고성장기업이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2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증가 중 1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완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의 수와 감소세를 보이는 기업의 수는 유사했다. 2002-2005년 기간에 대한 분석도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다.

영국의 평균적인 고성장기업은 3년 만에 직원 수가 3배가 되었으며, 2005년에 약 60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에는 170명 이상에 달하였다. 그 결과 증가한 고용의 절반 정도를 고성장한 소수의 기업이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게 사업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NESTA(2009)는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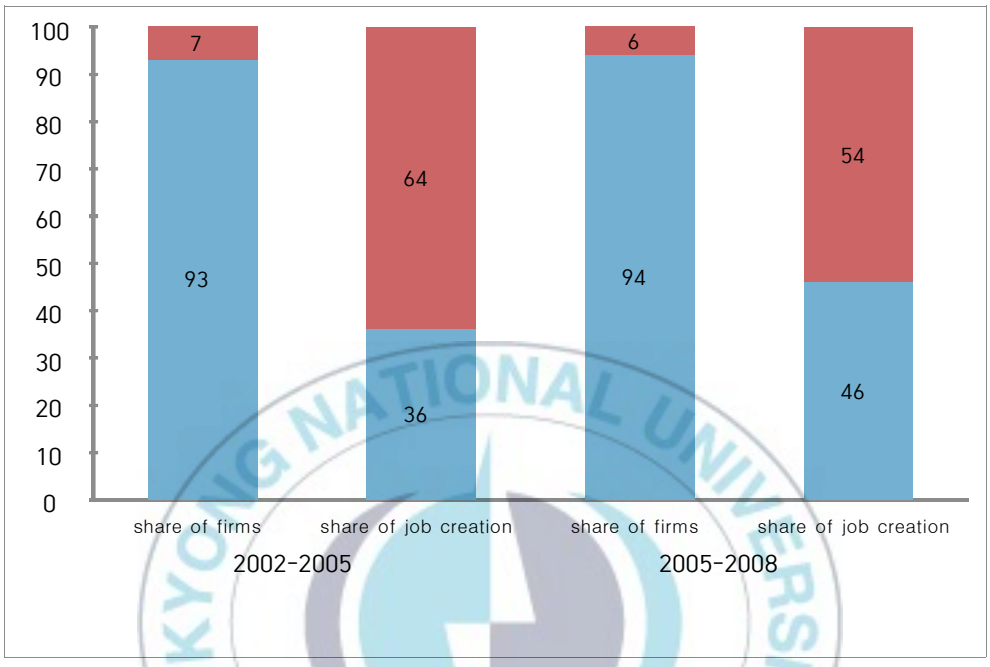
---

6) NESTA (2009), “Measuring Business Growth High-Growth Firms And Their Contribution To Employment In The UK,” .

Collection @ pknu

〈그림 2-1〉 직원수 10인 이상인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단위: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Collection @ pknu

제 2절 국내 주요 선행연구

1. 임채윤 (2009)[7)]

임채윤(2009)은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2007)에 응답한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2004~2007년 기간 연속적으로 고용통계가 입수 가능한 2,393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성장기업을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매출증가율이 100% 이상, 고용증가율이 평균의 2배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분석대상 2,393개 기업 중에서 16.1%에 해당하는 386개 기업이 고성장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다. 고성장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표본의 16.1%로 외국 사례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임채윤은 표본의 선택 편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혁신형 중소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 기업의 비중이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임채윤(2009)은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는 <그림 2-3>과 같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고성장 중소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004년 57명에서 2007년 114명으로 연평균 약 26% 증가한 데 비해서, 고성장기업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004년 59명에서 2007년 37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14.4% 감소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고성장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은 연평균 14.5%로 일반 기업의 약 2.5배이며,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 성장은 연평균 26.2%로 일반기업의 고용 감소를 상쇄한다고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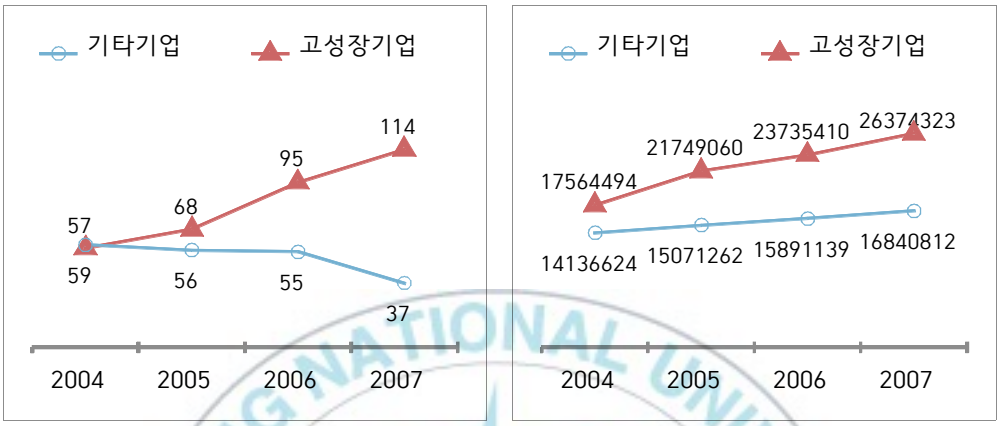
---

7) 임채윤 (2009),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33호

dCollection @ pknu

<그림 2-2> 평균 종업원수 추이 및 매출액 추이

(단위: 명)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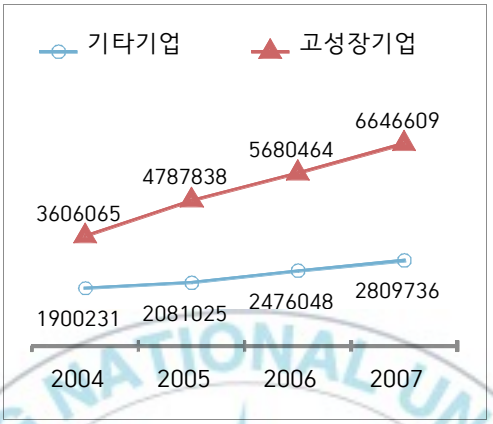


고성장기업의 수출규모는 <그림 2-4>과 같이 평균 6백만 달러이며 연평균 22.6%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주력제품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내수-글로벌시장 또는 글로벌-내수시장 전환 등 두 가지 형태를 따르고 있다. 국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분야의 경우 내수중심에서 글로벌화 되는 경향이 높으며, 국내시장 기반이 취약한 분야는 해외의 주요시장(또는 기업)에 진입함으로써 평판을 확보한 후 국내 경쟁에 참여한다고 제시하였다.

Collection @ pknu

<그림 2-3> 평균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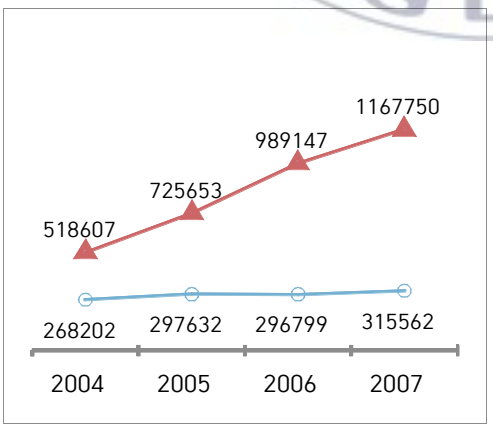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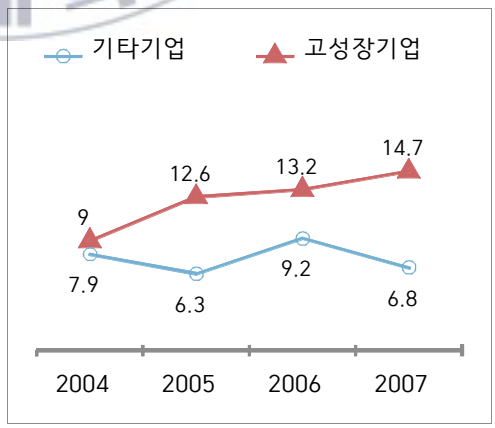
고성장기업은 고객 니즈의 반영,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기술혁신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또는 일정 비율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R&D 투자 증가율 31.1%, R&D집약도 증가율 17.8%)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그림 2-5>참조).

<그림 2-4> 평균 개발비 및 R&D집약도 추이

(단위 : 천원)



(단위 : %)



임채윤은 고성장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또는 생존 지원 정책과 성장 지원 정책

Collection @ pknu

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386개 고성장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14.6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성장 중소기업은 매출 성장보다 높은 고용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고성장 중소기업은 고용 확대를 통해 조직화 및 시스템화를 추구하고 성장지향적인 경영전략 추진하고 있다.

2. 김석현 (2009)[8)]

제조업 상장사에서 2004~2008년 5년간의 평균매출액증가율을 중심으로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이들과 여타기업 그리고 다시 이들 내에서 상위 50위 기업과 하위 50위 기업을 비교 분석하여, 고성장기업의 특성을 <그림 2-2>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2-2>를 보면, 1단계에서는 100대 기업을 선정한 대상군 769개에서 100대 기업에 선정되지 못한 669개 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성장기업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00개의 고성장기업을 다시 상위 순위 50개와 하위순위 50개로 비교분석하여, 상위 고성장기업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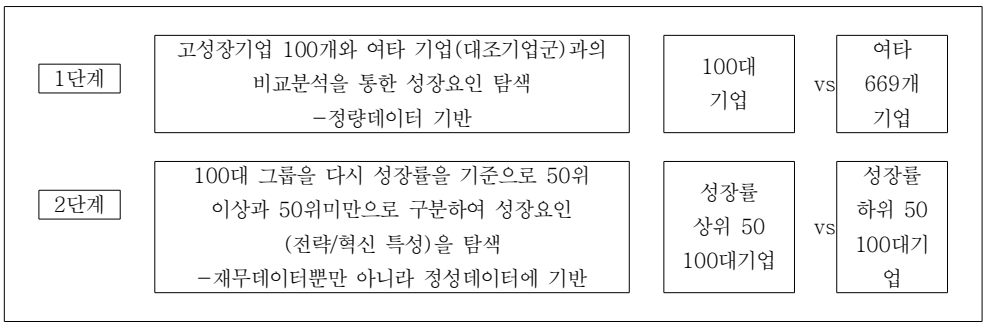
이때 정량데이터와 설문데이터를 분석하는 주안점은 속성, 시장요인, 경영전략, 혁신요인으로 구성하였다(<표 2-1> 참조). 분석결과, 한국의 100대 고성장기업은 여타기업에 비해서 기계장비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고용규모 500명 미만에서, 업력 20년 미만, 매출규모 5백억~4천억 원 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집약도나 특허출원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고성장기업의 상위 50위의 기업은 하위 50위 기업에 비해 기계장비산업에서, 고용규모 300명 미만에서, 업력 9년 이하, 매출규모 500억원 미만에서 그 비중이 두드러진다. 또한 상위 50위 기업이 혁신노력과 성과에서 두드러진다.

8) 김석현 (2009), "100 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 「과학기술정책」, 제36호

Collection @ pknu

〈그림 2-5〉 고성장기업 특성 분석의 방법론 프레임



〈표 2-1〉 고성장기업 분석의 주안점

분석요소	지표(요인)
속성	업력, 산업, 고용규모, 매출규모
시장요인	수출, 주력시장, 시장점유, 고객
경영전략	기업전략(다각화 등), 다각화방법, 사업전략, 자금조달, 핵심인력
혁신요인	연구개발투자, 혁신유형, 혁신의의, 연구원 비중, 연구개발파트너, 정부의 지정 등

3. 서정대 · 김선화 (2009)[9)]

서정대 · 김선화(2009)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4,68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고성장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16,000여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상시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4,683개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고성장기업을 '05~ '08년

9) 서정대, 김선화 (2009), "중소기업 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제31권, 제2호.

dCollection @ pknu

기간 동안 ‘고용 증가율 100% 이상을 달성한 사업체’로 정의하고, 이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였다. 고성장기업의 규모별 분포 및 업력별 분포를 파악하고,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4,683개 업체 중에서 약 10.0%인 467개 업체가 고성장기업에 해당되었으며 이들 고성장기업은 동기간 동안 29,8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체 신규 일자리의 46.3%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기업이 신규로 창출한 사업체당 평균 일자리 수는 64개(연평균 21개)로, 보통 성장기업(저성장기업)의 약 3.8배에 해당한다.

초고성장기업은 3.4%의 극히 적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자리증가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성장기업의 고용증가율에 2배 높은 수준이다. ‘고용증가율 200% 이상’인 기업의 경우를 ‘초고성장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고성장기업이 모든 규모에 걸쳐 나타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2-2>를 살펴보면 전체 업체 중에서 20인 미만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7.1%인데 반해, 20인 미만의 업체의 고성장기업 비중은 43.7%로 월등히 높다. 초고성장기업 중에서 20인 미만의 비중(51.0%)은 고성장기업의 경우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50인 이상 (초)고성장기업은 수 및 비중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고성장기업의 분포는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고성장기업에 의한 신규 일자리 창출 임팩트를 적게 하는 요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중기업의 비중이 한국 보다 높고 고성장기업의 규모 분포 또한 전체 기업의 규모 분포와 유사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의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50인 이상 규모의 고성장기업이 직면하는 특별한 어려움의 해결과 잠재적 고성장기업의 발굴에 특히 주력할 필요가 있다.

Collection @ pknu

〈표 2-2〉 고성장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

(단위: 개, %)

구 분	10~19인	20~49인	50~99인	100 ~199인	200 ~299인	300인 이상	합계
고성장기업	204 (43.7)	189 (40.5)	51 (10.9)	22 (4.7)	1 (0.2)	0 (0.0)	467 (100.0)
초고성장기업	80 (51.0)	60 (38.2)	11 (7.0)	6 (3.8)	0 (0.0)	0 (0.0)	157 (100.0)
전 체	1,268 (27.1)	1,930 (41.2)	850 (18.1)	443 (9.5)	144 (3.1)	48 (1.0)	4,683 (100.0)

<표 2-3>을 살펴보면 고성장기업이 업력(설립 경과년수)에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어 외국의 사례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설립된 지 5~10년 미만 경과된 기업이 각각 60%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20년 미만, 5년 미만 등의 순이었다. 외국의 사례에 비해 중규모 이상의 고성장기업의 비율이 낮았다.

〈표 2-3〉 고성장기업의 업력별 분포

(단위: 개, %)

구 분	5년 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합 계
고성장기업	74 (15.8)	281 (60.2)	100 (21.4)	10 (2.2)	2 (0.4)	467 (100.0)
초고성장기업	26 (16.6)	100 (63.7)	27 (17.2)	4 (2.5)	0 (0.0)	157 (100.0)

dCollection @ pknu

4. 조덕희 (2011)[10]

조덕희(2011)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개별 기업데이터(KISVALUE)를 활용하여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를 측정하여 우리나라에서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 성과가 과연 예상처럼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KISVALUE의 제조업 부문 상장 · 등록 · 외감 법인 중에서 2005~2008년 3년 동안 종업원 수 통계가 입수 가능하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5,915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조덕희(2011)는 고성장기업의 측정 기준을 OECD 기준에 따라서 분석 기간 3년 동안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이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종사자 수 10인 이상으로 분석대상 기업을 한정한 이유는 종사자 수 10인 이하 기업은 적은 수의 고용증가에도 고용증가율이 매우 높게 표시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표 2-4>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고성장기업은 조사대상 5,915개 기업 중에서 9.8%에 해당하는 581개사로 나타났으며, 총 고용창출 기여도가 31%에 달한다. 전체 조사 대상 5,915개 기업의 2005~2008년 기간 동안 총 종사자 수는 15만 3,874명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종사자 수 감소가 11만 6,111명 발생하여 순 고용증가는 3만 7,763명이다.

순 고용증가 중에서 2005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종사자 수 300인 이하인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는 3만 6,458명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하였으며, 고성장 대기업의 고용증가는 1,305명으로 전체의 3.5%이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9.8%에 해당하는 581개 고성장기업이 총 고용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높다. 참고로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4.8%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이 총 고용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로 매

10) 조덕희 (2011),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dCollection @ pknu

우 높다.

〈표 2-4〉 고성장기업의 기업체 수 및 고용 변화(2005~2008)

단위 : 개, 명, (%)

연평균 증가율	전체	0% 미만	0% 이상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기업체 수	5,915 (100.0)	2,410 (40.7)	3,505 (59.3)	1,328 (22.5)	581 (9.8)	286 (4.8)	156 (2.6)
고용 증가	37,763	-116,111	153,874 (100.0)	91,843 (59.7)	47,763 (31.0)	29,726 (19.3)	17,171 (11.2)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별 정보인 KISVALUE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함

<표 2-5>를 살펴보면 고성장기업(581개사)의 종사자 수(중간값 기준)는 2005년 37명에서 2008년 92명으로 연평균 35.5% 증가한 데 비하여, 전체 기업 중 고성장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5,334개)의 종사자 수는 2005년 90명에서 2008년 88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0.7% 감소하였다.

〈표 2-5〉 고성장기업과 일반 기업의 고용 추이 비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5~2008 연평균 증감률
고성장기업 (581)	평균값	57.7	82.2	116.3	140.0	34.4
	중간값	37	53	74	92	35.5
일반 기업 (5,334)	평균값	246.1	251.6	251.0	244.2	-0.2
	중간값	90	90	91	88	-0.7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별 정보인 KISVALUE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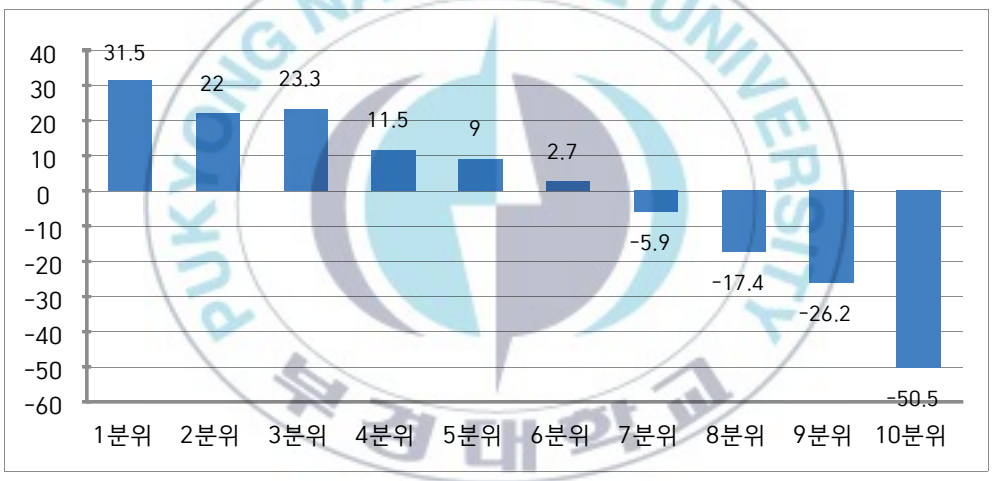
최상위 상위 10%에 속한 기업의 2005~2008년 기간 중 종사자 수 증가는

dCollection @ pknu

4만 8,402명으로 같은 기간 총 종사자 수 증가인 15만 3,874명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6>참조).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31.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고성장기업 비중이 9.8%로 대체로 상위 10%와 일치하는 데 기인한다. 최하위 10분위 계층에 속한 기업이 총 고용감소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고용증가율 10분위에서 최상위 10%와 최하위 10% 계층에 속한 기업이 총 고용창출 및 총 고용감소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 고용증가율 10분위 기업별 고용창출 비중 : 증가율기준

(단위 : %)



<그림 2-7>와 <그림 2-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1994~2009년 기간 동안 고용창출 역량이 큰 '고성장 중소기업' 의 수는 점차 줄어들거나 정체하고 있는 데 비하여, 고용창출 역량이 부족한 '성장 정체 중소기업' 의 수 및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고성장 중소기업은 창업 이후 10년 이내에 종사자 수 50인 이상의 성장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성장정체 중소기업은 창업 이후 10년이 넘도록 종사자 수 19인 미만의 영세 소기업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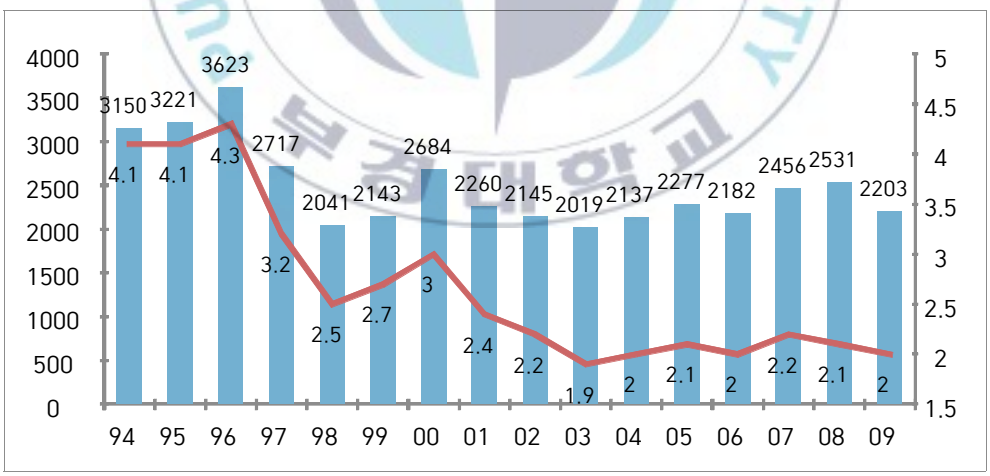
Collection @ pknu

‘고성장 중소기업’ 의 수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3,623개사에 달했지만, 이후 수의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000년에는 2,684개사, 2009년에는 2,203개사로 다소 줄거나 정체하고 있다. ‘성장 정체 중소기업’ 의 수는 1996년 2만 1,720개사에서 2000년 2만 9,447개사, 그리고 2009년에는 3만8,093개사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고용창출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성장 중소기업의 수를 늘리고, 이들의 지속 발전을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 방식은 가급적 많은 중소기업에 정책지원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성장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단계별·종합지원을 실시하는 데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결국 일반 중소기업 지원방식과 차별화된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7> 고성장 중소기업의 수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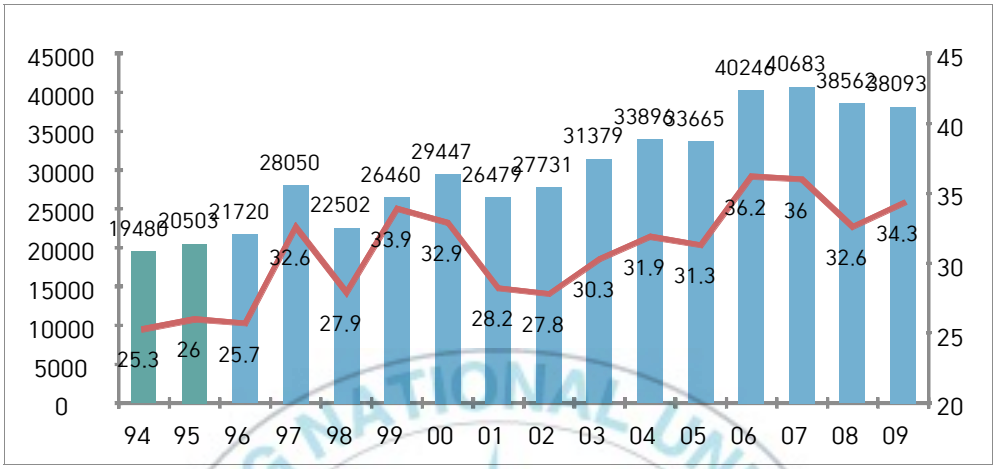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연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주 : ‘고성장 중소기업’ 은 창업 이후 10년 이내에 종사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인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dCollection @ pknu

〈그림 2-8〉 성장 정체 중소기업의 수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연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주 : '성장 정체 중소기업' 은 창업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종사자 수가 19인 이하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5. 박순홍 · 신현한(2013)[11)]

박순홍 · 신현한(2013)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여 1회 이상 벤처확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가젤기업 및 非가젤기업으로 분류한 후 가젤기업의 수익성 및 고용창출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 분석하였다.

이들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 해당기간 중 1회 이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189,317개 기업을 1차 표본으로 선정하고 NICE평가정보를 통해 재무자료를, 고용정보원을 통해 고용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표본은 1차 표본 중에서 매출액 규모가 최소 1 억 원 이상이며 기업업력이 최소 3년 이상 그리고 고용인원이 최소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여 87,532개 기업을 선정하였

11) 박순홍, 신현한 (2013), "가젤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1호

dCollection @ pknu

다. 이들 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평균 고용성장률이 20% 이상이며 매출액성장률이 소속 산업 중앙값의 3배 이상 높은 기업을 가젤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수익성, 연구개발, 고용창출능력 및 노동생산성 등 크게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非가젤기업과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익성은 해외의 연구와 동일하게 국내에서도 가젤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다. 가젤기업으로 선정된 이후(1년 내지 3년 이 후)에도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총자본순이익률(ROE)이 유의적으로 높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하고 미래 수익성에도 긍정적이다.

연구개발의 경우 가젤기업이 非가젤기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비중이 높았다. 또한 총자산대비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총자산대비유형고정자산증가율, 특허수 모두 가젤기업이 非가젤기업보다 높다. 고용수준이나 신규고용 모두 가젤기업이 非가젤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높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또한 가젤기업이 높아 가젤기업이 非가젤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

6. 김석현 · 김선우 · 정현주(2013)[12)]

김석현 · 김선우 · 정현주(2013)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성장기업군과 여타 기업군(고성장기업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군)을 비교하여 고성장기업의 정성적 정량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조업과 일부 비제조업 중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평균(CAGR) 성장률 기준 매출 20% 또는 고용 15% 이상인 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고성장기업은 연평균성장률 기준으로 매출액이 연평균 33.3%, 영업이익이 40.9%, 고용이 16.8%에 이르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도의 매출액 25.4%, 영업이익 26.1%, 고용 12.9%와 비교하여 보아도 높은 성장을 보였음을

12) 김석현, 김선우, 정현주(2013), “2013년 고성장기업의 전략과 혁신특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Collection @ pknu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매출액합계는 연평균 9.5%, 영업이익 5.6%, 고용 2.5%인 여타기업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여타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합계 9.7%, 영업이익 8.1%, 고용 1.5%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영업이익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였다.

고성장기업은 대조군인 여타 기업군에 비추어 다양한 측면에서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규모는 기존 연구에서는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대를 확고한 고성장 매출구간으로 하되,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그보다 작은 5백억 이상 1천억 원 미만이나 그보다 큰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대 구간에서도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큰 편이었으며 올해에는 5백억 원에서 1천억 원 대가 가장 비중이 높다.

고용규모는 100명 이상 500명 이하 구간에서 활발하며 이는 매년 같은 유형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자산규모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규모가 많고 고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업력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10년 이하 구간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에서 고성장기업이 두드러지지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의 비중이 높아지고 10년 이내의 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고성장기업이 두드러지는 산업군은 화학/비금속, 금속/기계장비, 전기전자산업으로 매년 편차가 있다. 전기전자의 경우 고성장이 두드러지다가 전년도에는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고성장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IT/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예년에는 고성장기업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전년도부터 점차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혁신특성이 두드러지지만 전년도에 비해 연구개발집약도가 약간 하락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타기업에 비하여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아 고성장기업들의 연구개발의욕이 높다. 특허출원/등록에 있어서 고성장기업은 여타기업들과 비교하여 1개 이상의 구간에서 두드러지며 특허출원이 활발했다.

Collection @ pknu

제 3장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

제1절 고성장기업의 분포

1.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13]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업체 수는 2000년 4,788개에서 2013년 9,527개로 총 103,821개 기업이다. 이 중에서 연구기간 동안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존속하지 않은 기업과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확인하여 이상값이 있는 경우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매년 업체수가 증가한 것은 자료로 활용한 KISVALUE DB가 현재 외부감사대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업종에 따라 고용의 구조가 달라 이를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업의 경우 선원을 제외하고 종업원 수를 외부감사보고서에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선원은 도급제의 성격인 짓가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고용을 중시하는 고성장기업 연구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장기업을 3년간 상시근로자가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OECD의 정의를 준용한 것이며[14] 또한 2014년 중소기

13) 외부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14) Eurostat, OECD (2007), “OECD Manual on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p.59-63

Collection @ pknu

업청이 가젤형 기업(고성장기업의 일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과 유사한 방식이다.[15]

* 고용인원이 `10년 20명, `13년 35명일 경우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0.4%

: $(\sqrt[3]{(35/20)}-1)\times 100\% = 20.4\%$

고성장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년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2003년 4개년의 성장률을 계산하여 2003년 3,358개의 표본이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2013년까지 총 11개년치 52,732개의 표본이 선정되었다.

<표 3-1> 표본 선정

(단위 :$)

연도	전체	외감으로 연구기간 중 존속	매출액 종업원수 확인 후	4개년 성장률 계산 표본
2000	4,788	3,463	3,359	
2001	5,212	3,942	3,825	
2002	6,082	4,325	4,195	
2003	6,691	4,624	4,476	3,358
2004	6,756	4,835	4,679	3,824
2005	6,861	5,017	4,853	4,191
2006	7,253	5,260	5,091	4,470
2007	7,727	5,522	5,343	4,676
2008	8,074	5,787	5,601	4,850
2009	8,382	5,981	5,777	5,082
2010	8,527	6,182	5,972	5,320
2011	8,740	6,356	6,144	5,561
2012	9,201	6,543	6,334	5,698
2013	9,527	6,575	6,349	5,702
합계	103,821	74,412	71,998	52,732

15) 2014년도 가젤형 기업 육성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2014-217에서 중소기업청은 가젤형 기업을 최근 3년('10~'1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지역소재 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한 기업 단, 시작연도(2010년)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

dCollection @ pknu

2. 연도별 고성장기업의 분포

고용을 기준으로 고성장기업의 수와 비중을 <표 3-2>와 <그림 3-1>에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고성장기업의 수는 2003년 전체 제조기업 3,358개 중에서 12.15%에 해당하는 408개이었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 고성장기업의 수는 615개였으며 그 비중은 14.67%까지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로 고성장기업의 수와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474개로 그 비중은 9.33%로 급감하였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고성장기업의 수와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 고성장기업의 수와 비중은 592개, 10.39%까지 증가하였다. 2013년에 고성장기업의 수와 비중은 490개, 8.59%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사이에 기업 고용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표 3-2> 연도별 표본 분포 및 비중

(단위 : 개, %)

연도	고용 고성장기업 (A)	전체기업 (B)	비중 (C=A/B*100)
2003	408	3,358	12.2
2004	540	3,824	14.1
2005	615	4,191	14.7
2006	608	4,470	13.6
2007	586	4,676	12.5
2008	514	4,850	10.6
2009	474	5,082	9.3
2010	526	5,320	9.9
2011	577	5,561	10.4
2012	592	5,698	10.4
2013	490	5,702	8.6
합계	5,930	52,732	11.3

주 : 고성장기업 비중(%) = (해당 연도의 고성장기업 수 / 연도별 사업체 수) x 100

dCollection @ pknu

〈그림 3-1〉 고성장기업의 수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개, %)

주 : 고성장기업 비중(%) = (해당 연도의 고성장기업 수 / 연도별 사업체 수) x 100

3. 지역별 고성장기업의 분포

각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성장기업의 분포를 광역시와 도단위로 분류하여 <표 3-3>과 <그림 3-2>에 정리하였다.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연구기간 동안 전체기업 수에서 고성장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976개), 서울(728개), 경남(646개) 순이다. 해당 지역의 기업 중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15.3%), 전북(15.2%), 대전(14.3%) 순이다.

dCollection @ pknu

〈표 3-3〉 지역별 기업 분포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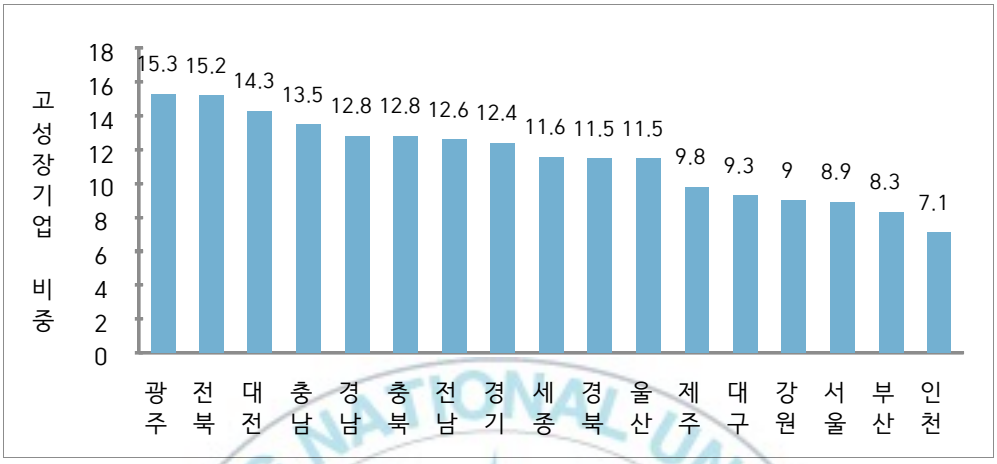
지역	고용 고성장기업 (A)	전체기업 (B)	비중 (C=A/B*100)
광주	127	830	15.3
전북	158	1,039	15.2
대전	97	679	14.3
충남	497	3,669	13.5
경남	646	5,054	12.8
충북	284	2,227	12.8
전남	94	749	12.6
경기	1,976	15,983	12.4
세종	27	233	11.6
경북	373	3,247	11.5
울산	146	1,272	11.5
제주	4	41	9.8
대구	180	1,937	9.3
강원	44	488	9.0
서울	728	8,206	8.9
부산	293	3,514	8.3
인천	250	3,530	7.1
합계*	5,924	52,698	11.2

* 지역 정보가 누락된 자료 수는 34개로 총 기업수의 차이가 발생함

dCollection @ pknu

<그림 3-2> 지역별 고성장기업의 비중

(단위 : %)



주 : 고성장기업 비중(%) = (해당 지역의 고성장기업 수 / 해당 지역 전체 사업체 수) x 100

4. 업종별 고성장기업의 분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 Korea Standard Industry Code)는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산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활동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 분류체계 중 제조기업은 대분류 C코드로 분류된다. 대분류 C는 다시 24개의 중분류로 분류된다.

KSIC-9의 제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고용 고성장기업의 분포를 <표 3-4>와 <그림 3-3>에 정리하였다.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연구기간 동안 제조업 전체기업 수에서 고성장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1,194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064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565개) 순이다.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ollection @ pknu

(17.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7.3%), 기타 운송장비(15.4%) 순이다.

〈표 3-4〉 업종별 기업 분포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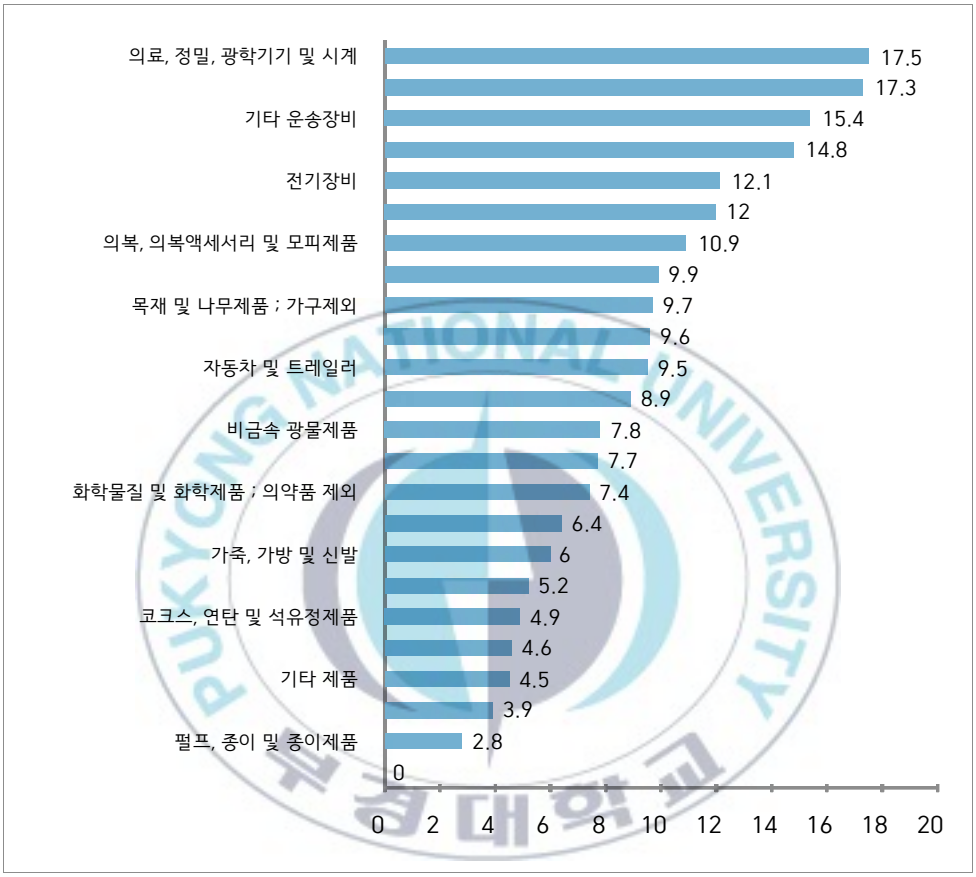
KSIC-9에 의한 제조업 업종 내 중분류	고용 고성장기업 (A)	전체기업 (B)	비중 (C=A/B*100)
1차 금속	390	4,063	9.6
가구	16	346	4.6
가죽, 가방 및 신발	24	397	6.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70	2,733	9.9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제외	386	3,212	12.0
기타 기계 및 장비	1,194	8,082	14.8
기타 운송장비	202	1,310	15.4
기타 제품	18	398	4.5
담배	0	8	0.0
목재 및 나무제품 ; 가구제외	27	277	9.7
비금속 광물제품	165	2,106	7.8
섬유제품 ; 의복제외	52	1,334	3.9
식료품	215	2,403	8.9
음료	20	314	6.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22	1,843	17.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18	1,530	7.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65	1,508	10.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	405	5.2
자동차 및 트레일러	565	5,929	9.5
전기장비	352	2,906	1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64	6,161	17.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5	305	4.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2	1,135	2.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297	4,027	7.4

주 : 고성장기업 비중(%) = (해당 업종의 고성장기업 수 / 해당 업종 전체 사업체 수) x 100

dCollection @ pknu

<그림 3-3> 업종별 고성장기업의 비중

(단위 : %)



위 업종은 KSIC-9 제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규모별 고성장기업의 분포

상시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 규모별 고성장기업의 분포를 <표 3-5>와 <그림 3-4>에 정리하였다.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연구기간 동안 종업원 규모별 고용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20인 이상 50인 미만(12.9%), 10인

dCollection @ pknu

이상 20인 미만(12.5%) 순이다. 고성장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규모의 구간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1,746개), 20인 이상 50인 미만(1,484개), 100인 이상 200인 미만(1,370개) 순이다.

〈표 3-5〉 규모별 기업 분포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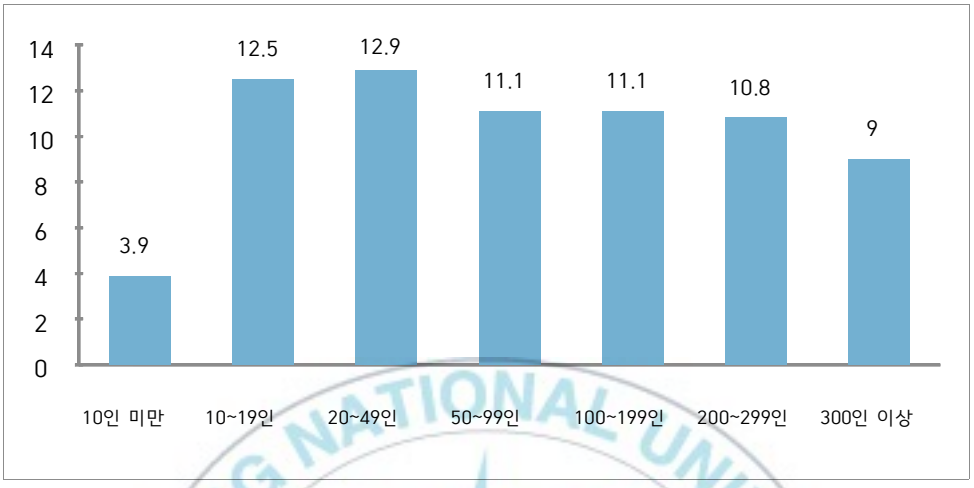
종업원 규모	고용 고성장기업 (A)	전체기업 (B)	비중 (C=A/B*100)
10인 미만*	13	336	3.9
10~19인	214	1,714	12.5
20~49인	1,484	11,462	12.9
50~99인	1,746	15,669	11.1
100~199인	1,370	12,288	11.1
200~299인	530	4,894	10.8
300인 이상	573	6,369	9.0
합계	5,930	52,732	11.25

* 10인 미만 구간에서는 기업 수가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대상을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한정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dCollection @ pknu

〈그림 3-4〉 규모별 고성장기업의 비중

(단위 : %)



주 : 고성장기업 비중(%) = (해당 규모의 고성장기업 수 / 해당 규모의 전체 사업체 수) x 100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Collection @ pknu

제2절 고성장기업의 고용효과

<표 3-6>와 <그림 3-5>는 4개년 고용증가율에 따라 기업분포를 정리하고 이들 기업의 고용창출을 분석한 것이다. 2003~2013년 기간 동안 52,732개 기업 중에서 4개년 고용성장률이 (-)인 기업은 19,245개로 전체에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서 감소한 고용은 857,909개이다.

고용성장률이 (+)인 기업은 33,487개로 전체에 63.5%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성장률이 (+)인 기업 중 고성장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 20%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5,930개로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창출하는 신규 일자리 수는 602,011개로 총 고용창출의 64.2%이다. 따라서 고용창출에 상당부분을 고성장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표 3-6> 4개년 고용성장률 기준 고성장기업의 기업체 수 및 고용 변화(200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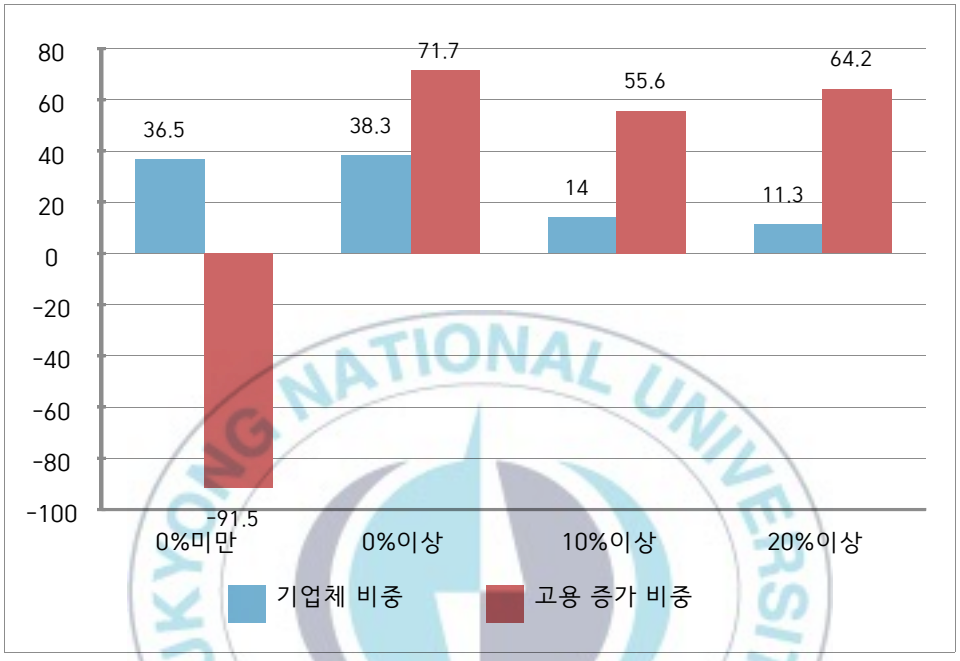
(단위 : 개, 명, %)

4년 평균 증가율	~<0%	0%~<10	10~<20%	20%~	전체
기업체 수	19,245	20,173	7,384	5,930	52,732
기업체 비중	36.5	38.3	14.0	11.2	100
고용 증가	-857,909	672,100	521,743	602,011	937,945
고용 증가 비중	-91.5	71.7	55.6	64.2	100

Collection @ pknu

<그림 3-5> 4개년 고용성장률 기준 고성장기업의 기업체 비중 및 고용 변화(2003~2013)

(단위 : %)



전체 분석대상 52,732개 기업을 4개년 평균 고용증가율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10개 분위로 구분하고, 각 계층별로 고용증감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표 3-7>과 <그림 3-6>에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성장기업의 정의 및 측정 기준과 관계없이 분위별 고용창출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표 3-7>에서 보듯이, 최상위 10%에 속한 기업의 2003~2013년 기간 중 신규 고용창출은 55만 6,495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규 고용창출 93만 7,945명의 59.3%를 차지하였다. 고용감소의 경우 고용증가율에서 최하위 10분위 계층에 속한 기업이 총 고용감소의 54.2%를 차지하였다. 최상위 10%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이 최하위 10% 성장 정체 및 감소기업 분을 상회하고 있다. 최하위 4개분위의 고용감소율의 합인 91.0%는 최상위 2개분위의 합 101.4%만으로 상회하는 것

dCollection @ pknu

을 통하여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기여도를 알 수 있다.

〈표 3-7〉 고용증가율 10분위 기업별 고용창출 비중(4개년 평균 증가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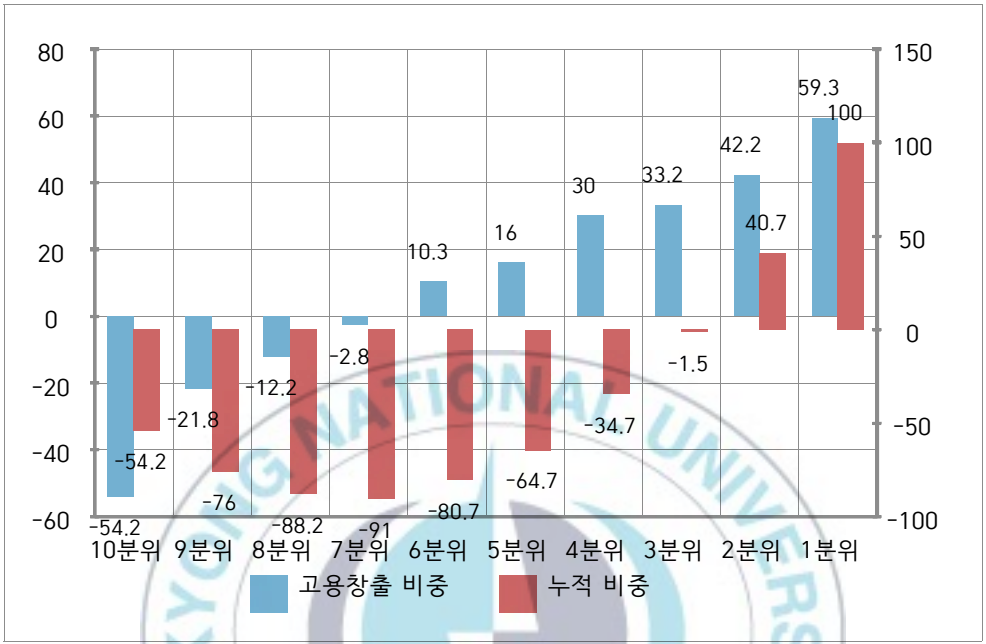
(단위 : 명, %)

분위수	고용창출	비중	누적비중
10분위	-507,934	-54.2	-54.2
9분위	-204,093	-21.8	-76.0
8분위	-114,117	-12.2	-88.2
7분위	-27,215	-2.8	-91.0
6분위	96,632	10.3	-80.7
5분위	150,352	16.0	-64.7
4분위	281,499	30.0	-34.7
3분위	311,591	33.2	-1.5
2분위	394,735	42.2	40.7
1분위	556,495	59.3	100.0
계	937,945	100.0	200.0

dCollection @ pknu

〈그림 3-6〉 고용증가율 10분위 기업별 고용창출 비중(4개년 평균 증가율 기준)

(단위 : %)



dCollection @ pknu

제 4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의

한 나라의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00년대 초반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의 고용 고성장기업에 대하여 분석하여 고용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한 기업정책수립자와 각 기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분석 시 2003년에서 2013년까지 11개 연도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이들 기업의 고용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기업 데이터(KISVALUE)를 활용하여 제조업 부문의 외부감사대상법인을 대상으로 매출액과 고용 자료를 확보하였다. 3개년 고용이 20%이상 성장하는 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OECD의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와 정의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성장기업의 수와 비중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4개년 고용성장률이 (-)인 기업은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순고용은 감소하였다. 고성장기업의 비중은 11.2%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창출은 64.2%이다. 고성장기업의 종사자 수(중간값 기준)는 증가한 데 비하여, 일반 기업의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다.

둘째, 고성장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976개), 서울(728개), 경남(646개) 순이었으며, 해당 지역의 기업 중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15.3%), 전북(15.2%), 대전(14.3%) 순이었다.

셋째, 고성장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1,194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064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565개)

Collection @ pknu

순이다.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17.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7.3%), 기타 운송장비(15.4%) 순이었다.

넷째, 상시근로자 기준 규모별 고용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20인 이상 50인 미만(12.9%), 10인 이상 20인 미만(12.5%) 순이다. 고성장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규모의 구간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1,746개), 20인 이상 50인 미만(1,484개), 100인 이상 200인 미만(1,370개) 순이었다.

다섯째, 고용증가율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들을 10개 계층(10분위)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별로 고용증감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 10%에 속한 기업이 신규 고용창출의 59.3%를 차지하였다. 고용증가율에서 최하위 10분위 계층에 속한 기업이 총 고용감소의 54.2%를 차지하였다. 최하위 4개분위의 고용감소율의 합인 91.0%는 최상위 2개분위의 합 101.4%만으로 상쇄 및 상회하고 있다.

분석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용창출에서의 고성장기업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성장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고성장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양상이 추후에도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고용없는 성장' 구조는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계약직 근로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만을 고려하였으며 계약직 근로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Collection @ pknu

둘째,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을 제조업 기업으로 국한하고 전체 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쳤지만 향후에는 고성장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최근의 고성장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감소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누락된 점이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Collection @ pknu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권오형 (2011), "가젤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과 성장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권오형, 문종범, 김인섭 (2012), "수퍼 가젤형 기업의 특성과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구 벤처경영연구), 제 15 권, 제 2 호, pp. 45-64.

김석현 (2009), "100 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 「과학기술정책」, 제 36 호

김석현, 김선우, 정현주(2013), “2013년 고성장기업의 전략과 혁신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석현, 정현주 (2012), “고성장기업의 전략과 혁신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선화 , 서정대 (2009), "중소기업 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 31 권, 제 2 호

김수욱(2010),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벤처경영연구」,제 13 권 제 1 호, pp.87~114.

박순홍, 신현한 (2013), “가젤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 35 권, 제 1 호

서정대 (2008),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현황과 제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pp.80~101.

서정대 (2011),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 - 10%의 기업이 46%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중소기업연구원」, .

서정대, 김선화 (2009), “중소기업 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제31권, 제2호.

dCollection @ pknu

임채윤 (2009),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33호

조덕희 (2011),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청 (2014), “2014 년도 가젤형 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중소기업청」.

Collection @ pknu

국외문헌

Acs, Z. J. (2011), "6 High-Impact Firms: Gazelles Revisited," Handbook Of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National And Regional Perspectives, pp. 133.

Acs, Z. J., Mueller, P. (2008), "Employment Effects Of Business Dynamics: Mice, Gazelles And Elephant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30, No. 1, pp. 85-100.

Birch, D. L. (1981), "Who Creates Jobs," Public Interest, No. 65, pp. 3-14.

Birch, D. L. and J. Medoff (1994), "Gazelles", in Lewis C. S. and A. R. Levenson, eds. Labor Markets, Employment Policy and Job Creation, Boulder: Westview Press. pp. 159-167.

Birch, D., Scott, J. G., Haggerty, A., Parsons, W. (1999), "Who's Creating Jobs?," Cognetics.

Eurostat, OECD (2007), "OECD Manual on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p.59-63

NESTA (2009). "Measuring Business Growth: High Growth Firms And Their Contribution To Employment In The UK," .

NESTA (2009). "The Vital 6 Per Cent: How High-Growth Innovative Businesses Generate Prosperity And Jobs," NESTA Research Summary, .

OECD (2000), "High-Growth Firms and Employment," OECD Publishing.

OECD (2002), "High-Growth SMEs and Employment,"

OECD (2007), "High Growth Enterprises and Gazelles - Preliminary and Summary Sensitivity Analysis," OECD-FORA.

OECD. (2013), "Managing High-Growth Firms: A literature review," .

dCollection @ pknu